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LCSH

김 정 현(Jeong-Hye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1.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관별 특성 |
| 1. 연구목적 및 방법 | 2.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주제별 특성 |
| 2. 선행연구 | IV. 결 론 |
| II. LCSH의 발전과정 및 현황 | |
| III. LCSH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및 특성 분석 | |

초 록

이 연구는 LCSH에 수록된 주제명표목 가운데 한·중·일 관련 주제명의 변천과정 및 특성을 LCSH 초판(1914)부터 제31판(2009)까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LCSH 초판에서는 한·중·일 관련 주제명이 각각 4개, 49개, 24개였지만 제31판에서는 713개, 1,742개, 2,647개로 늘어났으며, 한국의 '6.25 전쟁'과 '3개의 국가명'(1948년 이전, 남한, 북한), 일본의 '사적'과 '다도', 중국의 '소수민족 관련 언어 및 문학'과 '무역' 등이 특징적인 주제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관련 주제명이 누락되었거나 세목이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LC의 장서수집 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필요한 한국 관련 문헌이 LC에 골고루 많이 수집될 수 있도록 기증을 하는 등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미국의회도서관주제명표목표, 주제명표목, 주제명목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China, Japan in the LCSH, from the first edition to 31th ed. The analytic results show that the headings in the 31th edition include in Korea 713, China 1,742, Japan 2,647, compared to Korea headings 4, China headings 49, Japan headings 24 in the first edition. Some subject headings considered important and essential are left out. We can also recognize the some headings are relatively too subdivided. The omitted and insufficient Korean, Chinese, Japanese subject headings are considered to be tied up with library policies of LC. Therefore our active support such as donation are being called for collecting more detailed analysis of Korea, China, Japan-related publications in LC.

Keywords: LCSH,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Subject Headings, Subject Catalog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7-H00015).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chonnam.ac.kr)

• 접수일: 2010년 5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0년 5월 28일 • 최종심사일: 2010년 6월 25일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LCSH(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는 원래 미국의회도서관(LC)에서 자관의 장서를 주제어로 검색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지만, 오늘날 미국 내의 도서관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도서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만큼 보편화 되었다. 즉, LCSH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대학 및 연구도서관 등에서 주제명목록의 작성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프랑스, 캐나다 등 불어권의 많은 도서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명실 공히 국제적인 주제명표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주제명은 외부적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자국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표기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관련 주제명의 변화 추이를 항상 주목하여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일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국경을 접하고 있어 관련 주제명이 LCSH에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는 LCSH 초판(1914)부터 제31판(2009)까지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LCSH와 관련문헌을 분석하여 LCSH의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LCSH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판별로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LCSH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특성은 최신판인 제31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때 주제별 구분은 LCSH에 나타나 있는 주제명표목이나 세목의 용어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며, 유사주제끼리 군집화를 하여 비교 분석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LCSH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을 모두 추출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30만여 건(1만 쪽)에 해당하는 주제명을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편의상 'Korea'와 'Korean', 'China'와 'Chinese', 그리고 'Japan'과 'Japanese'로 시작되는 주제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 선행연구

LCSH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Kim은 LCSH 제12판(1989)을 대상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알파벳순으로 편집하였다.¹⁾ 김영귀는 LCSH 제18판(1995)에 나타난 한국 관련 주제명을 분석하였으

며,²⁾ 윤정옥은 LCSH 제20판(1997)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명표목을 비교 분석하였다.³⁾ 김정현과 문지현은 LCSH 제1판부터 제30판까지 한국 관련 주제명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⁴⁾ Findley 등은 LCSH에 나타난 일본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였다.⁵⁾ 그런데 이들 연구는 대부분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 간의 비교 분석이 어렵거나 LCSH 최신판이 아니어서 최근의 주제명에 대한 변화 추이를 알 수가 없다.

한편 LCSH 관련 연구로 국내의 김주성,⁶⁾ 윤혜영,⁷⁾ 국외의 Chan,⁸⁾ Knowlton,⁹⁾ Stone,¹⁰⁾ Studwell,¹¹⁾ 山本,¹²⁾ 渡邊¹³⁾ 등이 있으며, 이들의 연구도 대부분 LCSH의 일반적인 구조와 특성, 발전과정 등에 관한 연구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LCSH에 관한 연구는 주로 LCSH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이나 특정 판의 특정 국가 주제명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LCSH의 초판부터 제31판까지 한·중·일 관련 주제명의 판별 및 주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
- 1) Joy Kim,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 Related to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 ([Unknown]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89).
 - 2) 김영귀, "LC Subject Headings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대학편), 제44집(1997), pp.237-272.
 - 3) 윤정옥,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제56권, 제1호(2001), pp.30-55.
 - 4) 김정현, 문지현, "LCSH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pp.49-68.
 - 5) Naomi Findley et al.,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Related to Japan : Topical Headings*(New York : Committee on East Asian Librarie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94).
 - 6) 김주성, LC 주제명표목표와 시소러스의 색인어 구조 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5).
 - 7) 윤혜영, "LC Subject Headings 색인어 구조 분석," 인문사회과학논문집(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7권, 제2호(2003), pp.133-150.
 - 8) Lois Mai Chan,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rinciples and Application*. 4th ed. (Westport, Conn. : Libraries Unlimited, 2005).
 - 9) S. A. Knowlton, "Three Decades Since Prejudices and Antipathies: A Study of Changes in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40, No.2(2005), pp.123-146.
 - 10) Alva T. Stone, *The LCSH Century: one Hundred Years with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System*(New York : Haworth Information Press, 2000).
 - 11) William E. Studwell,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hilosophy, Practice, and Prospects*(New York : Haworth Press, 1990).
 - 12) 山本一治, "米國議會圖書館件名標目表(LCSH)의特性-標目の意味、標目間の關係、主題表現の「文法」の観点から," TP&Dフォーラムシリーズ, 第17回(2007. 8), pp.26-58.
 - 13) 渡邊隆弘, "LC件名標目表(LCSH)の基本構造と檢索支援の可能性," TP&Dフォーラムシリーズ, 第13回(2003. 8), pp.37-58.

II. LCSH의 발전과정 및 현황

Charles A. Cutter가 1895년 중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의 부록으로 만든 것이 ALA의 *List of Subject Headings for Use in Dictionary Catalog*이며, 그 후 이것을 토대로 1914년 LC에서 *Subject Headings Used in the Dictionary Catalogues of the Library of Congress*를 발간했는데 이것이 LCSH 초판이다.¹⁴⁾

LCSH의 초판은 이름 그대로 LC의 주제명표목표로 출발하였지만 1930년대에는 LC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많은 도서관에서도 이를 채용하게 되었다. 5~15년 간격으로 판을 거듭한 후, 1975년 제8판부터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라는 현재의 표제로 변경되었다.

1980년대 들어 참조구조를 비롯하여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즉, 1988년 제11판부터 시소러스방식의 표시기호를 도입하였고, 주제명의 수도 계속 늘어나 이후 판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CD-ROM으로도 제작되었다. 또한 2002년도부터 전거데이터의 검색시스템을 웹상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제31판이 발간되어 있으며, 이제는 책자형태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계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LCSH의 신규 및 변경표목에 대해서는 웹 사이트를 통해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Weekly Lists*로 알려주고 있으며, 이를 다음 개정판에 그대로 추가하여 발행하게 된다.

한편 LCSH의 참조기호는 다음과 같은 변천과정을 겪어왔다. 초판에서는 See와 See also의 참조기호가 사용되었으며, 제4판에서는 See 참조와 See also 참조 외에 이것을 역으로 나타낸 역참조 Refer from의 별표도 첨부되어 있다. 제5판에서는 Refer from의 역참조를 본표에 통합시켰으며, 참조를 나타내는 기호(sa, x, xx, See)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sa는 See also 참조, x는 See from 참조, xx는 See also from 참조를 의미한다. 제11판부터 시소러스방식의 표시기호가 도입되어 sa는 NT, x는 UF, xx는 BT, See는 USE로 변경되었다.

LCSH 제31판은 2009년 2월 현재 LC의 주제전거파일에 수록된 모든 주제전거레코드를 수록하고 있으며, 그 표목의 총수는 대략 308,400개이다. 1년 전에 발간된 제30판에 비해 9,400개의 레코드가 추가되었다. 제31판의 표목 가운데 인명 22,200개, 가족명 20,800개, 단체명 6,100개, 회의명 9개, 통일표제 480개, 주제적 주제명(topical subject) 250,000개, 지리적 주제명 59,800개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 USE 참조 750개, 일반 see also 참조 4,200개, 사용되고 있는 표목에서 사용가능한 다른 표목으로 참조(BT, NT, RT) 269,000개, 사용되지 않는 용어에서 사용가능한 표목으로 참조(UF) 310,000개이다.¹⁵⁾

14) Lois Mai Chan,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rinciples and Application*, 4th ed. (Westport, Conn. : Libraries Unlimited, 2005), pp.5-7.

15)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31th ed.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2009), pp.vii-viii.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LCSH 제1판부터 제31판까지 판별 현황을 한·중·일 관련 주제명과 함께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주제명표목의 전체 개수가 제10판 이후에는 각 서문에 나타나있지만 제1판부터 제9판까지는 나타나있지 않아 생략하였다. 한·중·일 관련 주제명은 'Korea'와 'Korean', 'China'와 'Chinese', 그리고 'Japan'과 'Japanese'로 시작되는 주제명을 중심으로 직접 조사하였다.

Ⅲ. LCSH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및 특성 분석

1.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판별 특성

LCSH 초판부터 제31판까지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주요 변천과정 및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으며, 특히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 참조어, 수록 면수 등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가. 한국 관련 주제명표목의 판별 특성

(1) 제1판에서 제4판까지

① 1914년(제1판)부터 1943년(제4판)까지는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일반적인 한국의 국가명 표목인 'Korea'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Korean'으로 시작되는 일반 주제명표목 'Korean language', 'Korean literature', 'Korean literature-Bibl.', 'Koreans in the U.S.' 등 4개가 수록되어 있다.

(2) 제5판에서 제9판까지

① 1948년 제5판에 한국의 국가명 표목 'Korea'가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② 1957년 제6판에서는 'Korean War, 1950-1953'(6.25 전쟁)을 독립표목으로 하여 23개의 세목과 2개의 하위개념어를 수록하였으며, 'Korea-History'와는 참조관계를 설정하였다.

③ 제7판에서는 'Korea-History'가 13개의 세목으로 늘어났으며, 하위개념어로 'Tonghak Incident, 1894'(동학혁명)가 추가되었다. 이때 전개된 한국역사의 전개가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대부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④ 제8판에서 'Korea-History'의 세목에 'Allied occupations, 1945-1948'(군정시대) 등이, 하위개념어로 'Kapsin Incident, 1884'(갑신정변) 등이 추가되었으며, 'Korean literature'를 비롯하여 장르별로 문학이 세분되었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2호)

〈표 1〉 LCSH의 판별 현황과 한·중·일 관련 주제명의 변화

판차	발행 년도	면수	권수	주제명 수	한국			중국			일본		
					표목 수	참조어 수	소계	표목 수	참조어 수	소계	표목 수	참조어 수	소계
1	1910-1914	1,088	2		4	0	4	35	14	49	17	7	24
2	1919	1,315	9		4	0	4	29	19	48	11	16	27
3	1928	1,535	1		4	0	4	31	20	51	12	19	31
4	1943	2,743	2		4	0	4	36	23	59	19	20	38
5	1948	1,204	1		7	0	7	50	43	93	31	24	55
6	1957	1,357	1		33	5	38	69	61	130	36	30	66
7	1966	1,432	1		54	7	61	102	64	166	76	40	116
8	1975	2,026	2		116	14	130	151	97	248	216	84	300
9	1980	2,591	2		127	21	148	296	143	439	285	116	401
10	1986	3,543	2	145,000	180	109	289	491	275	766	731	285	1,016
11	1988	4,164	3	162,750	200	127	327	589	407	996	942	321	1,263
12	1989	4,463	3	173,000	215	146	361	605	429	1,034	1,282	356	1,638
13	1990	4,709	3	181,000	227	158	385	614	447	1,061	1,421	365	1,786
14	1991	4,904	3	186,000	236	166	402	626	465	1,091	1,480	373	1,853
15	1992	5,091	4	192,000	239	183	422	650	465	1,105	1,510	428	1,938
16	1993	5,091	4	199,000	266	196	462	678	512	1,156	1,567	444	2,011
17	1994	5,584	4	206,300	271	210	481	689	518	1,207	1,562	468	2,030
18	1995	5,796	4	214,900	271	218	489	705	538	1,243	1,578	485	2,063
19	1996	5,979	4	222,900	279	223	502	709	550	1,267	1,580	485	2,065
20	1997	6,165	4	232,000	288	232	520	719	556	1,275	1,634	503	2,137
21	1998	6,374	5	239,000	291	239	530	731	564	1,295	1,669	512	2,181
22	1999	6,495	5	245,000	294	240	534	737	569	1,306	1,685	526	2,212
23	2000	6,677	5	251,300	302	244	546	744	577	1,321	1,713	535	2,248
24	2001	6,859	5	257,600	317	252	569	774	663	1,437	1,730	552	2,282
25	2002	7,041	5	263,000	347	258	605	782	693	1,475	1,732	555	2,287
26	2003	7,285	5	270,000	350	259	609	795	700	1,495	1,739	574	2,313
27	2004	7,592	5	279,000	352	277	629	820	707	1,527	1,755	586	2,341
28	2005	7,782	5	284,500	353	279	632	855	724	1,579	1,762	596	2,358
29	2006	7,946	5	290,000	357	282	639	862	741	1,603	1,774	613	2,387
30	2007	8,268	5	299,000	371	290	661	904	747	1,651	1,792	632	2,424
31	2009	8,745	6	308,400	404	309	713	935	807	1,748	1,814	653	2,467

⑤ 제9판에서 'Korea-History-To 935'(고려시대 이전 한국역사)의 하위개념어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수록되었으며, 'Korea'의 세목으로 'Civilization', 'Economic conditions', 'Politics and government' 등이 시대세목과 함께 추가되었다.

(3) 제10판

- ① 국가명 표목 'Korea'의 하위개념어로 'Korea(South)'와 'Korea(North)'를 수록하였으며, 이후 주제명에 따라 1948년을 기점으로 남북한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 ② 'Korea'의 세목으로 'Social conditions', 'Religion', 'Foreign Relations'가 추가되고, 'Korea(South)'의 세목으로 경제 관련 주제명인 'Industries', 'Economics conditions', 'Economics policy' 등이 수록되었다.
- ③ 80년대 한국의 현대사를 상징하는 'Korean Air Lines Incident, 1983'(KLA기 폭파사건), 'Kwangju Uprising, Korea(South), 1980'(광주사태), 'Korean Demilitarized Zone(Korea)'(비무장지대)가 수록되었다.
- ④ 'Korean fiction', 'Korean drama', 'Korean poetry'에 하위개념어가 모두 13개 추가되었다.
- ⑤ 'Korean American women' 등 'Korean American ~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주제명이 독립표목으로 4개가 추가되었다.
- ⑥ '동해'의 주제명표목이 한국인의 정서와는 달리 'Japan, Sea of'로 수록되었으며, 'Tong-hae'는 참조어로 되어 있다. 사실상 많은 세계지도나 백과사전 등에 '동해'의 명칭을 'Sea of Japan'으로 표기되어 있는 현실을 LCSH에서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⑦ 'Paektu Mountain(Korea)'(백두산)이 처음으로 수록되었으며, 한글발음으로 표기되었다. 괄호 안에 지리 한정어를 'Korea'로 표시하고 있다.

(4) 제11판에서 제13판까지

- ① 제11판에서 'Tok Island'(독도)가 독립표목으로 처음 수록되었다. 한글발음을 로마자화 하면서 M-R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괄호 안에 지리 한정어를 'Korea'로 표시함으로써 독도가 한국에 소속된 지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Take-shima'(다케시마)는 '독도'의 표목으로 채택되지 않고 참조어(UF)로 되어 있을 뿐이다.
- ② 제11판에서 'Yalu River(China and Korea)'(압록강)가 독립표목으로 처음 수록되었으며, 표목은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Amnok-kang(China and Korea)'은 참조어로 되어 있으며, 괄호 안에 지리 한정어를 'China and Korea'로 표시하고 있다.
- ③ 제12판에서 'Korea(South)'의 세목으로 '-Antiquities'와 '-Yosun Rebellion, 1948'(여순반란사건)'이 처음 수록되었다.
- ④ 제13판에서 'Korea-History-Japanese invasion'의 참조어로 'Imjin Waeran, Korea, 1592-1598'(임진왜란)과 'Chongyu Chaeran, Korea, 1597-1598'(정유재란)이 수록되었다.
- ⑤ 제13판에서 'Korean drama' 등의 문학 장르를 'Korean literature'의 하위개념어로 수록하였다. 그 이전에는 이들 주제명은 'Korean literature'와는 독립표목이었다.

(5) 제14판에서 제22판까지

- ① 제14판에서 'Korea-History'의 세목으로 '-- Chejudo Rebellion, 1948'(제주도사건), 'Korean War-Atrocities'의 하위개념어로 'Koch'ang Incident, Korea, 1951'(거창사건)이 추가되었다.
- ② 제15판에서 'Korea Strait'(대한해협)이 독립표목으로 처음 수록되었다.
- ③ 제16판에서는 제9판부터 수록되었던 'Korea-History-To 935'의 하위개념어인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삭제하였다.
- ④ 제16판에서 'Korean literature'의 하위개념어로 'Korean letters' 등 8개가 추가되었다.
- ⑤ 제18판에서 주제명표목이던 'Korea-Industries'와 'Korea(South)-Industries'가 참조어로 수록하고, 도치형태인 'Industries-Korea'와 'Industries-Korea(South)'가 표목어로 변경되었다.
- ⑥ 제20판에서 'Tumen River'(두만강)가 독립표목으로 처음 수록되었으며,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괄호 안에 지리 한정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개념어(BT)를 살펴보면 'China', 'Korea(North)', 'Russia(Federation)'의 3개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제23판부터 제25판까지

- ① 제23판에서 '독도'의 참조어가 4개에서 15개로 늘어났으며, 이때 'Liancourt Rocks'(리앙쿠르 암)가 처음 수록되었다.
- ② 제24판에서 한국문학에 'Hanmunhak'(한문학), 'Hansi'(한시), 'Hanmun sup'il'(한문수필), 'Hanmun sosol'(한문소설) 등이 추가되었다.
- ③ 제24판에서 'Korea-Intellectual life'의 시대세목이 세분되었다.

(7) 제26판에서 제31판까지

- ① 제26판에서 'Korea-History, Military'가 수록되었다.
- ② 제26판에서 '조선시대'(Chosen dynasty, Choson dynasty, Joseon Chosen dynasty)가 참조어로 수록되었으며, 표목은 '이조시대'(Yi dynasty)로 되어 있다. 제27판에서 '이조시대' 대신에 '조선시대'가 표목으로 변경되었다.
- ③ 제27판에서 국가명 'Korea'의 하위개념어로 'Korea(South)'만 남겨두고 'Korea(North)'를 삭제하였다.
- ④ 제27판에서 'Korea Strait'(대한해협)의 참조어로 'Tsushima Strait'(쓰시마해협)가 수록되었다.
- ⑤ 제28판에서 'Japan, Sea of'(동해)의 참조어로 'East Sea(Korea and Japan)', 'Korea, Sea of', 'Sea of Korea' 등 한국측 표기가 일부 추가되었으나 표목은 여전히 'Japan, Sea of'로 되어 있다.
- ⑥ 제29판에서 '독도'의 참조어로 'Hornet Islands(Korea)'가 추가되었다.
- ⑦ 제30판에서 'Independence Day(Korea)'(광복절)이 독립표목으로 수록되었다.

⑧ 제31판에서는 'Korea'의 하위어(NT)로 되어 있던 'Korea(South)'를 독립표목으로 변경하고, 'Korea(North)'도 독립표목으로 추가되었다. 'Korea(South)'의 세목으로 '-Foreign relations'와 '-Social conditions'가 추가되었다.

나. 중국 관련 주제명표목의 판별 특성

(1) 제1판

① 제1판에는 중국 관련 주제명표목 35개, 참조어 14개가 수록되어 있다.

② 중국의 국가명 표목 'China' 아래 '-Hist.'의 세목이 있으며, 여기에는 다시 시대별로 9개의 세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역사 관련 주제명으로 'Chinese-Japanese war, 1894-1895'와 'Chinese-French war, 1884-1885'가 독립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③ 'Chinese'로 시작되는 표목은 'Chinese-Origin'을 비롯하여, 국가별로 흩어져 있는 중국민족과 관련된 주제명으로 'Chinese in ~'의 형태로 나타난 주제명이 14개가 수록되어 있다.

④ 중국문학 및 언어 관련 주제명으로 'Chinese language', 'Chinese literature', 'Chinese fiction', 'Chinese poetry' 등이 수록되었다.

⑤ 'Chinese astronomy', 'Chinese chronology', 'Chinese folk-lore', 'Chinese manuscripts', 'Chinese music' 등은 참조어로 수록되어있으며, 이들 참조어의 표목은 'Astronomy, Chinese' 등과 같이 모두 도치형식으로 되어있다.

(2) 제2판에서 제7판까지

① 제2판에서는 'Chinese newspapers' 등이 수록되었으며, 'China-History'의 세목으로 '-- Revolution, 1911-1912'와 '-- Republic, 1912-' 2개가 추가되었다.

② 제4판에서는 'Chinese periodicals'와 'Chinese wit and humor' 등이 수록되었다.

③ 제5판에서 'Chinese'로 시작되는 식물명 주제명인 'Chinese cabbage'(배추)가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④ 제6판에서는 'China-History'의 세목으로 '--Han dynasty, 202 B.C.-220 A.D'(한나라), '--Three Kingdoms, 220-265'(삼국시대) 등 9개가 추가되었다.

⑤ 제6판에서 'Chinese chess'와 'Chinese philology'가 수록되고, 'Chinese language'의 세목으로 '-Alphabet' 등 4개가 추가되었다.

⑥ 제7판에서는 'China-History'의 세목으로 '-- T'ang dynasty, 618-907'(당나라) 등 왕조별 구분을 대폭 세분하여 세목이 40개로 늘어났다.

⑦ 제7판에서 'Chinese drama', 'Chinese fiction', 'Chinese poetry' 등의 세목으로 '-20th century'가 각각 추가되었다. 이외에 'Chinese language'의 세목으로 '-Machine translating'과 '-Reform'이

추가되었다.

(3) 제8판에서 제9판까지

① 제8판에서 'China-History'의 세목마다 다시 하위세목을 대폭 추가하여 세목이 61개로 늘어났다. 특히 역사구분의 시점을 제1판에서는 '-- Early to 1643'부터 시작하였지만, 제8판 이후에는 '-- To 1766 B.C'부터 시작하였다.

② 제8판에서 'Chinese'로 시작되는 동물명 주제명인 'Chinese white dolphin'(돌고래), 중국의 무역관련 주제명 'China trade art'와 'China trade porcelain'이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이외에도 'Chinese-Japanese War, 1894-1895'의 세목 6개, 'Chinese language'의 세목 4개가 추가되었다.

③ 제9판에서 'China'의 세목으로 '-Antiquities', '-Bibliography', '-Church history', '-Civilization', '-Description and travel', '-Economic conditions', '-Economic policy', '-Foreign relation', '-Industries', '-Politics and government', '-Religion', '-Social conditions' 등이 처음으로 수록되고 하위세목을 전개시켰다.

④ 'China-History'의 세목도 추가되어 83개로 늘어났으며, 'Chinese literature' 등의 주제명을 시대별로 크게 세분하여 문학 관련 주제명이 모두 66개로 늘어났다. 'Chinese language'의 세목으로 '-Etymology'와 '-Writing, Seal style'이 추가되어 언어관련 주제명이 25개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Chinese Americans', 'Chinese language in Hongkong,[etc.]', 'Chinese in motion pictures' 등이 수록되고 세목을 전개시켰다.

⑤ 제9판에서 전반적으로 참조어가 제8판의 97개에서 143개로 대폭 늘어났다.

(4) 제10판

① 제10판은 전판에 비해 주제명이 327개(표목 195개, 참조어 132개)가 늘어 766개(표목 491개, 참조어 275개)가 되었다.

② 'China-Civilization'의 하위개념어와 세목이 추가되어 31개로 늘어났다.

③ 'China-History'의 세목이 추가되어 101개로 늘어났다. 특히 역사구분의 시점을 제8판 이후에는 '--To 1766 B.C'부터 시작하였지만 제10판 이후에는 '--To 221 B.C'부터 시작하여 현재 제31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언어, 문학 등의 시대구분도 대체로 여기에 준하여 구분되어 있다.

④ 'China'의 세목으로 '-Intellectual life'가 수록되고, '-Social conditions', '-Social life and customs', '-Politics and government'의 하위세목이 '-History'의 시대구분에 준하여 세분되었다.

⑤ 'Chinese literature'를 비롯한 문학 관련 주제명이 131개로 늘어나고, 언어 관련 주제명은 'Chinese language'와 처음 수록된 'China-Languages'를 포함하여 모두 48개로 늘어났다. 특히

문학의 경우 각 장르마다 하위개념어가 많이 추가되었다.

(5) 제11판에서 제23판까지

① 제11판에서 국방 관련 주제명 'China-History, Military'와 'China-History, Naval'이 수록되었다.

② 제11판에서 문학 관련 세목 및 하위개념어 20개, 'Chinese-Dialects' 하위개념어 8개가 추가되는 등 주제명 표목이 전체적으로 90개가량 추가되었다.

③ 제11판에서 'Chinese cabbage'의 참조어 19개, 'Chinese white dolphin' 참조어 7개가 추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참조어가 제10판의 275개에서 407개로 대폭 늘어났다.

④ 제13판에서 'China-History'의 세목으로 '--Tiananmen Square Incident, 1989'(텐안먼 사건)가 수록되었다.

⑤ 제14판에서 'China-Language'의 하위개념어 9개를 비롯하여, 'Chinese language'의 세목으로 '-Simplified characters'(간체자)가 추가되었다.

⑥ 제16판에서 'China-Language'의 하위개념어 12개를 비롯하여, 역사, 문학, 문화, 민족 관련 주제명이 일부 추가되었다.

⑦ 제17판과 제21판에서 'China-Antiquities'와 'China-Civilization'의 하위개념어가 일부 추가되었다.

⑧ 21판에서 'Chinese remainder theorem'(中國剩餘定理)이 수록되었다.

(6) 제24판

①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Wade식'에서 'Pinyin식'으로 변경하여 전판에 비해 참조어 80여개가 늘어났다. 특히 일반역사 구분과 문학의 장르별 역사구분에서 아래와 같은 표기의 변화가 있었다.

예. Jin dynasty, 1115-1234

UF Chin dynasty, 1115-1234

Xi Xia dynasty, 1038-1227

UF Hsi Hsia dynasty, 1038-1234

Qing dynast, 1644-1912

UF Ch'ing dynasty, 1644-1912

② 제24판에서 'China-Race relations'가 처음으로 수록되고, 'China-Antiquities'의 하위개념어 6개, 'China-Languages'의 하위개념어 14개, 'China-History'의 세목 6개가 추가되는 등 전판에 비해 주제명 표목이 30여개 늘어났다.

(7) 제25판에서 31판까지

① 제25판에서 'China-Antiquities'와 'China-Civilization'의 하위개념어가 각각 2개와 5개씩 추가되었지만, 'China-Religion'의 하위개념어 등 일부 주제명은 삭제되었다.

② 제28판에서 'China-Antiquities'의 하위개념어 20개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China-Civilization', 'China-Politics and government', 'China-Social conditions' 등의 세목에 시대구분 '--2000-'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제31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③ 제30판에서 'China-History'의 세목 8개, 'Chinese American gangs' 등 민족 관련 주제명 4개, 문학관련 주제명 12개가 추가되었다.

④ 제31판에서 'Chinese-Religion', 'Chinese-Migrations', 'Chinese restaurants', 'Chinese tea ceremony', 'Chinese American musicians', 'Chinese diaspora', 'Chinese diaspora in literature' 등이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⑤ 제31판에서 'China-History'의 일부 세목이 시대별로 다시 배열되었다.

다. 일본 관련 주제명표목의 판별 특성

(1) 제1판

① 'Japan'이라는 독립표목으로서 국가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Art-Japan'과 같이 세목전개에는 사용되고 있다.

② 언어 및 문학 관련 주제명으로 'Japanese language', 'Japanese literature', 'Japanese poetry' 등 7개가 수록되어 있다.

③ 'Japanese in ~'으로 시작되는 민족 관련 주제명 8개가 수록되어 있다.

④ 'Japanese art', 'Japanese pottery', 'Japanese prints' 등은 참조어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표목은 'Art, Japanese' 등과 같이 모두 도치형식으로 되어있다.

(2) 제2판에서 제4판

① 제2판에서 독립표목으로 국가명 'Japan-History'가 수록되었다.

② 제2판에서 'Japanese in ~'로 시작되는 주제명 8개를 'Japanese in California, [Formosa, the U.S., etc.]'와 같이 하나로 통합하여 전체 주제명의 개수는 전판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③ 제2판에서 'Japan-History-War with China, 1894-1895'와 'Japan-History-War with Russia, 1904-1905'는 각각 'Chinese-Japanese war, 1894-1895'와 'Russia-Japanese war, 1904-1905'의 참조어로 수록되어 있다.

④ 제3판에서 'Japanese newspapers'가 수록되었고, 'Japanese current', 'Japanese calender', 'Japanese painting'은 각각 'Kuroshiwo', 'Calender, Japanese'와 'Painting, Japanese'의 참조어

로 수록되었다.

⑤ 제4판에서 'Japanese', 'Japanese-Origin', 'Japanese periodicals', 'Japanese philology'가 수록되었다.

⑥ 제4판에서 'Japanese'로 시작되는 식물명 주제명 'Japanese flowering cherry'(벚나무)와 동물명 주제명 'Japanese beetle'(알퐁뎅이)이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3) 제5판에서 제7판까지

① 제5판에서 'Japan'의 세목으로 '-Foreign relations-U.S.'와 '-Relations(general) with the USA'이 추가되고, 'Japan-History'의 세목으로 '--Meiji period, 1867-1912'(明治時代) 등이 추가되었다.

② 제5판에서 'Japanese clover', 'Japanese hymns', 'Japanese music', 'Japanese songs', 'Japanese river fever'가 각각 'Clover, Japanese'와 같이 참조어로 수록되었다.

③ 제6판에서 'Japna'의 세목으로 '-Civilization'이 수록되고, 'Japanese chess'와 'Japanese cosmogony'는 각각 'Shogi(game)'와 'Cosmogony, Japanese'의 참조어로 수록되었다.

④ 제7판에서 'Japan-History'의 시대구분을 위한 세목으로 '--Taishō period(大正時代)' 등이 추가되어 25개로 늘어나고, 'Japanese literature' 등의 세목과 하위개념어가 추가되어 문학 관련 주제명이 20개로 늘어났다.

⑤ 제7판에서 일본 문화 관련 주제명으로 'Japanese tea ceremony'(다도)가 수록되었고, 'Japanese wrestling'은 'Sumo'(스모)의 참조어로 수록되었다.

(4) 제8판에서 제9판까지

① 제7판의 경우 주제명이 116개(표목 76개, 참조어 40개)였지만 제8판은 180여개가 늘어 300개(주제명 216개, 참조어 84개)가 되었다.

② 제8판에서 'Japan-History'의 세목으로 '--Shōwa period, 1926-'(昭和時代) 등이 추가되어 86개로 대폭 늘어남으로써 역사 관련 주제명이 대부분 이때 확립되었다. 또한 역사구분의 시점도 이때부터 '--To 1867'에서 '--To 645'로 변경하여 현재 제31판 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③ 제8판에서 'Japanese diaries'와 'Japanese letters'가 처음으로 수록되고 'Japanese literature' 등의 세목과 하위개념어가 추가되어 문학 관련 주제명이 45개로 늘어났다.

④ 제8판에서 'Japanese'로 시작되는 의학 관련 주제명 'Japanese encephalitis'(일본뇌염)와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가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⑤ 제9판에서 'Japan'의 세목으로 '-Antiquities', '-Economic conditions', '-Economic policy', '-History, Military', '-History, Naval', '-Industries', '-Intellectual life', '-Politics and government',

'-Popular culture', '-Religion', '-Social conditions', '-Social life and customs' 등이 수록되었으며, '-Civilization', '-Emperors', '-Foreign relation', '-History' 등의 세목에는 다시 하위세목이 추가되었다.

⑥ 제9판에서 'Japanese language'의 세목이 추가되어 22개로 늘어났으며, 'Japanese poetry' 등의 세목과 하위개념어가 추가되어 문학관련 주제명이 66개로 늘어났다.

(5) 제10판

① 제10판은 전판에 비해 주제명이 무려 615개(표목 446개, 참조어 169개)가 늘어 1,016개(표목 731개, 참조어 285개)가 되었다.

② 'Japan-Antiquities'의 하위개념어 172개가 추가되었다.

③ 'Japanese essays'의 수록을 비롯하여, 문학 관련 세목 및 하위개념어가 추가되어 139개, 'Japanese language'의 세목이 추가되어 35개, 'Japan-Civilization'의 문화적 영향 관련 주제명 (~ influences) 10개가 추가되어 49개, 'Japan-History'의 시대구분 세목 15개가 추가되어 132개로 각각 늘어났다. 이외에도 'Japan-Social conditions'와 'Japanese tea ceremony' 등이 세분되고, 'Japan, Sea of'(일본해)가 처음 수록되었다.

(6) 제11판에서 제16판

① 제11판에서 'Japan-Antiquities'의 하위개념어 200개, 제12판에서 309개, 제13판에서 139개, 제14판에서 54개, 제16판에서 36개가 각각 추가되어 926개로 늘어났다.

② 제12판에서 'Japan-History'의 주요 세목마다 '---Humor' 등이 추가되어 151개로 늘어났으며, 역사 관련 주제명은 제31판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③ 제15판에서 'Japan-History'의 세목으로 '--Heisei period, 1989-'(平成時代)가 추가되어 제31판 현재까지 시대구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④ 제15판에서 'Japanese Red Army'(적군파)가 수록되고, 'Japan-Civilization'의 문화적 영향 관련 주제명 4개가 추가되어 61개로 늘어났다.

(7) 제17판에서 31판

① 제17판에서 'Japan-Description and travel'의 세목인 시대별 구분을 축소하여 참조어로 처리하였다. 또한 'Japan-Emperors' 등을 도치하여 'Emperors-Japan' 등으로 표목을 변경함으로써 원래의 표목이 참조어로 처리되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Japan'과 'Japanese'로 시작하는 표목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참조어는 늘어났다.

② 제20판에서 'Japan-Antiquities'의 하위개념어 48개가 추가되어 988개로 늘어났다.

③ 제23판에서 'Japanese literature' 등의 세목에 '-Heisei period, 1989-'가 추가되어 제31판

현재까지 문학 시대구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④ 제27판에서 'Japan-Civilization'의 문화적 영향 관련 주제명 8개, 기타 민족 및 문학 관련 주제명이 일부 추가되었다

⑤ 제31판에서 언어와 문학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시대세목이 일부 추가되었다.

2.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주제별 특성

LCSH 최신판인 제31판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이 형성되기까지의 주제명표목을 주제별로 분석을 하였다. 앞서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판별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표 2>는 제31판의 개략적인 주제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표 2>의 주제별 구분은 LCSH에 나타나 있는 주제명표목이나 세목의 용어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한·중·일 관련 주제명을 비교하기 위해 편의상 유사주제끼리 군집화를 하였다.

가. 한국 관련 주제명표목의 주제별 특성

(1) 역사·지리

한국역사 및 지리 관련 주제명은 <표 2>에서와 같이 23.1%이며, 이 가운데 '6.25 전쟁'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Korea'나 'Korean'으로 시작되는 지역명은 'Korean Demilitarizes Zone(Korea)'와 'Korea Strait' 2개가 있다.

한국의 국가명은 제5판부터 'Korea'로 시작되었으며, 제31판 현재 하위개념어로 'Korea(North)'와 'Korea(South)'로 구분되어 있다. 역사 관련 주제명표목은 주로 1948년 이전의 역사와 1948년 이후의 남한역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6.25 전쟁'은 제6판부터 'Korea-History'와는 독립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한국역사의 시대구분은 '--To 935'부터 전개하여 고려시대 이전을 하나의 시대로 취급하고 있어 역사뿐만 아니라 언어, 문학, 예술 등 모든 한국 관련 주제의 시대세목에 고려이전의 세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2) 문화

문화일반, 사적, 출판 및 언론 등 문화 관련 주제명표목은 <표 2>에서와 같이 10.5%이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문화일반에 대한 주제명은 주로 한국문화와 영향관계에 있는 주제명(~ influences 또는 ~ Korean influences)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적에 대한 주제명은 하위개념어로 제31판 현재 10개가 수록되어 있지만 일본의 1,026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다도에 대한 주제명은 'Korean tea ceremony' 한 개가 나타나 있다.

〈표 2〉 LCSH 제31판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주제별 현황

주제명표목		항목수(%)					
		한국		중국		일본	
역사·지리	- 역사(history)	84	86	131	140	153	157
	- 지리(geography)	2	(21.3)	9	(15.0)	4	(8.7)
문화	- 문화일반(civilization)	26	43 (10.5)	93	182 (19.5)	121	1,174 (64.7)
	- 사적(antiquities)	12		72		1,026	
	- 출판 및 언론(newspapers, periodicals)	4		8		10	
	- 다도(tea ceremony)	1		1		17	
	- 장기(chess)	0		8		0	
언어	- 시대(period)	3	24	4	162	6	65
	- 언어일반(language)	21	(5.9)	158	(17.3)	59	(3.6)
문학	- 문학일반(literature)	45	132 (32.7)	83	238 (25.4)	55	216 (11.9)
	- 시(poetry)	36		51		60	
	- 희곡(drama)	15		29		27	
	- 소설(fiction)	23		37		37	
	- 수필(essays)	4		13		5	
	- 산문(prose literature)	4		17		12	
	- 일기 및 서간(diaries, letters)	2		2		9	
	- 풍자(wit and humor)	3		6		11	
사회·민족	- 사회현상(social conditions)	9	55 (13.6)	11	86 (9.2)	13	83 (4.6)
	- 사회생활 및 관습(social life and customs)	6		10		13	
	- 지적인 삶(intellectual life)	5		13		10	
	- 한·중·일본인(Koreans, ...)	5		18		3	
	- 한·중·일본계 미국인(Korean, ... American)	30		34		44	
철학·종교	- 철학(philosophy)	9	14 (3.5)	18	24 (2.6)	8	22 (1.2)
	- 종교(religion)	3		4		9	
	- 교회사(church history)	2		2		5	
정치·행정·외교·국방	- 정치 및 행정(politics and government)	16	33 (8.2)	28	51 (5.4)	21	45 (2.5)
	- 외교(foreign relations)	13		11		14	
	- 국방(military)	4		12		10	
경제·무역	- 경제상황(economics conditions)	11	14 (3.5)	8	28 (3.0)	8	15 (0.8)
	- 경제정책(economic policy)	3		8		7	
	- 무역(trade)	0		12		0	
과학기술	- 의학(diseases, vaccine)	0	0 (0)	0	16 (1.7)	2	27 (1.5)
	- 식물(botany)	0		8		14	
	- 동물(zoology)	0		8		11	
기타		3	3 (0.7)	8	8 (0.8)	10	10 (0.5)
합계		404 (100%)		935 (100%)		1,814 (100%)	

(3) 언어

제1판에는 'Korean language'라는 1개의 주제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제31판 현재 24개의 주제명으로 늘어났으며, <표 2>에서와 같이 5.9%를 차지하고 있다. 제10판에 'Idu', 제16판에 'Kugyol' 등을 비롯한 많은 세목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언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법이나 회화 등의 주제명이 누락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세목 전개가 필요하며, 또한 '이두'나 '구결'과 같이 'Hanguk'(한글)도 하위개념어 또는 참조어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4) 문학

제1판에는 'Korean literature'와 'Korean literature-Bibl.' 2개의 주제명만 있었지만 제31판에는 132개로 늘어 3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표 2>에서와 같이 한국 관련 주제명 가운데 문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문학 중에서는 문학일반, 시, 소설, 희곡 등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 사회·민족

한국사회 및 민족 관련 주제명은 55개로 13.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민족 관련 주제명이 제1판에서 'Koreans in the U.S.'라는 1개의 주제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제31판에서 35개로 늘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에 관한 주제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6) 철학·종교

한국철학 및 종교 관련 주제명으로 제9판에 'Korea-Church history', 제10판에 'Korea-Religion'과 'Philosophy, Korean'이 수록된 후, 제31판에는 모두 14개로 늘어 3.5%를 차지하고 있다.

(7) 정치·행정·외교·국방

한국의 정치 관련 주제명으로 제9판에 'Korea-Politics and government', 제10판에 'Korea-Foreign relations', 제26판에 'Korea-History, Military'가 수록된 이후, <표 2>에서와 같이 제31판에서는 모두 33개로 늘어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군사 역사의 시대구분이 제26판에서 처음 전개되었던 그대로이며, 1910년까지만 수록되어 있어 그 이후의 시대구분이 필요하다.

(8) 경제

한국경제 관련 주제명은 제9판에 'Korea-Economic conditions', 제10판에 'Korea(South)-Economic conditions', 'Korea(South)-Economic policy'가 수록된 이후, 제31판에는 모두 14개로 늘어 3.5%

를 차지하고 있다.

(9) 과학기술

‘Korea’나 ‘Korean’으로 시작되는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주제명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은 반면, 중국은 16개, 일본은 27개가 수록되어 있다.

(10) 국경 및 영토

한국의 국경 및 영토와 관련된 주제명으로 독도, 동해, 대한해협,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등을 들 수 있다.

독도는 제11권에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한국식 발음인 ‘Tok Island(Korea)’가 표목으로 수록되었으며, ‘Take-shima(Korea)’를 포함하여 참조어가 4개였다. 그 후 제23판에서는 ‘가지도’, ‘삼봉도’, ‘리양쿠르암’ 등을 포함하여 참조어가 15개, 29판에서는 ‘호네트암’이 추가되어 참조어가 16개로 늘어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해는 제10권에 ‘Japan, Sea of’는 표목으로, ‘Tong-hae’는 참조어로 수록되었으며, 지리 한정어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제28판에 ‘East Sea(Korea and Japan)’, ‘Korea, Sea of’, ‘Sea of Korea’ 등이 참조어로 추가되었다.

대한해협은 제15판에 ‘Korea Strait’가 표목으로 수록되었으며, 지리 한정어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제27판에 참조어로 ‘Tsushima Strait’가 추가되었다.

압록강은 제11판에 중국식 발음인 ‘Yalu River(China and Korea)’가 표목으로 수록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두만강은 제20판에 중국식 발음인 ‘Tumen River’가 표목으로 수록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으며, 한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을 지리 한정어로 표기하고 있다.

백두산은 제10판에 한국식 발음인 ‘Paektu Mountain(Korea)’이 표목으로 수록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나. 중국 관련 주제명표목의 주제별 특성

(1) 역사·지리

중국의 국가명은 제1판부터 지금까지 ‘China’로 나타나 있다. 역사 관련 주제명표목은 제1판에서 ‘China-Hist.’ 아래 9개의 세목으로 시작하였지만 제10판에서는 100여개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중국 역사 관련 주제명이 이때 이미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제31판 현재 역사 및 지리 관련 주제명이 140개로 늘어났으며, 15%를 차지하고 있다. ‘China’나 ‘Chinese’로 시작되는 지역명은 ‘China, Northeast’를 비롯하여 모두 9개가 수록되어 있다.

중국역사의 시대구분은 '--To 221 B.C'부터 시작하여 '--2002-'까지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 구분의 시점을 제1판에서는 '--Early to 1643'부터 시작하였고, 제8판 이후에는 '--To 1766 B.C'부터 시작하였지만 제10판 이후에는 '--To 221 B.C'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언어, 문학 등의 시대구분도 대체로 여기에 준하여 구분되어 있다. 한·중·일 가운데 시대구분의 시점을 가장 고대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2) 문화

문화일반, 사적, 다도, 장기 등 문화 관련 주제명표목은 <표 2>에서와 같이 문학 다음으로 높은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문화일반과 사적에 대한 주제명이다. 그리고 문화 일반에 대한 주제명은 주로 중국문화와 영향관계에 있는 주제명(~ influences 또는 ~ Chinese influences)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Chinese chess)에 대한 주제명은 제31판에 8개가 수록되어 있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Korean chess'와 'Japanese chess'는 각각 'Changgi'와 'Shogi'의 참조어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다도에 대한 주제명은 'Chinese tea ceremony' 한 개가 나타나 있다.

(3) 언어

언어는 크게 시대 세목과 언어일반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표 2>에서와 같이 17.3%를 차지하고 있다. 제1판에는 'Chinese language'와 'Chinese language-Bibl.'이라는 2개의 주제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제31판 현재 162개로 늘어났다. 이는 소수민족 언어를 나타내는 'China-Languages'의 하위개념어가 90여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며, 한국이나 일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중국 언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 문학

문학 관련 주제명은 <표 2>에서와 같이 중국 관련 주제명표목 가운데 2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문학 중에서는 문학일반이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시, 소설, 희곡 순으로 주제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1판에는 'Chinese literature' 등 4개의 주제명만 있었지만 제9판, 제10판, 제11판 등에서 장르별로 세분되고 각 장르별로 하위개념어가 많이 추가되어 제31판에는 현재 238개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언어와 마찬가지로 소수민족 문학을 나타내는 'China-Literatures'의 하위개념어가 25여개가 수록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에 주제명이 많은 편이며, 중국 문학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5) 사회·민족

중국사회 및 민족 관련 주제명은 86개로 9.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민족 관련 주제명이 제1판에서 'Chinese-Origin'과 'Chinese in Africa, South' 등 15개의 주제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제31판에서는 52개로 늘었으며,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미국인에 관한 주제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Chinese diaspora'는 한국과 일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디아스포라 관련 주제명표목이다.

(6) 철학·종교

중국의 철학 및 종교 관련 주제명으로 제9판에 'China-Church history'와 'China-Religion', 제10판에 'Philosophy, Chinese'가 수록된 후, 제31판에는 이들 주제명의 세목을 포함하여 모두 24개이며, 2.6%를 차지하고 있다.

(7) 정치·행정·외교·국방

중국정치 관련 주제명으로 제9판에 'China-Politics and government'와 'China-Foreign relations', 제11판에 'China-History, Military'와 'China-History, Naval'이 수록된 이후, 제31판에는 이들 주제명이 모두 51개로 늘어 5.5%를 차지하고 있다.

(8) 경제

중국경제와 관련된 주제명은 경제상황, 경제정책, 무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9판에 'China-Economic conditions', 'China-Economic policy', 'China trade art', 'China trade porcelain'이 수록된 이후, 제31판에는 이들 주제명이 모두 28개로 늘어 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무역 관련 주제명이 한 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중국의 경우 12개나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관련 주제명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9) 과학기술

'China'나 'Chinese'로 시작되는 중국의 과학기술 관련 주제명은 식물 8개와 동물 8개 등 모두 16개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체 주제명가운데 가장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 일본 관련 주제명표목의 주제별 특성

(1) 역사·지리

일본의 국가명은 제2판부터 'Japan'으로 시작된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역사 관련 주제명표목은 제2판에서 'Japan-History' 아래 '--중일전쟁'과 '--러일전쟁' 2개의 세목으로 시작하였으

나 제31판 현재 153개로 늘어 8.7%를 차지하고 있다. 'Japan'이나 'Japanese'로 시작되는 지역명은 'Japan, Sea of'를 비롯하여 4개가 있다.

일본역사의 시대구분은 '--To 645'부터 '--Heisei period, 1989-'까지 전개되어 있다. 그런데 역사구분의 시점을 제5판에는 '--To 1867'부터 시작하였지만 제8판 이후에는 '--To 645'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언어, 문학 등의 시대구분도 대체로 여기에 준하여 구분되어 있다.

(2) 문화

문화관련 주제명표목은 문화일반, 사적, 다도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문화일반에 대한 주제명은 제6판에 처음으로 'civilization'과 'civilization-Occidental influences'의 2개로 시작되었지만 제31판에 121개로 늘어났으며, 주로 일본문화와 영향관계에 있는 주제명(~ influences 또는 ~ Japanese influences)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적에 대한 주제명은 제9판에 하위개념어 2개와 함께 처음 수록되었지만 제10판에 172개, 제11판 200개, 제12판에 309개, 제13판에 139개가 추가되는 등 계속 증가하여 제31판 현재 1,026개로 늘어나 일본 관련 전체 주제명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나 중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이다. 일본의 사적에 대한 주제명표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사적에 관한 자료가 실제로 LC에 많이 소장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도에 대한 주제명도 17개로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특징이다.

(3) 언어

제1판에는 'Japanese language'와 'Japanese language-Bibl.'라는 2개의 주제명으로 시작되었지만 <표 2>에서와 같이 제31판 현재 65개로 늘어 3.6%를 차지하고 있다.

(4) 문학

문학 관련 주제명표목은 <표 2>에서와 같이 문학일반을 비롯하여 장르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시, 문학일반, 소설, 희곡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1판에는 'Japanese literature'와 'Japanese literature-Bibl.' 2개의 주제명만 있었지만 제8판, 제10판, 제13판, 제16판, 제24판 등에서 세목과 하위개념어가 많이 추가되어 제31판 현재 216개로 늘어 11.9%를 차지하고 있다.

(5) 사회·민족

일본사회 및 민족 관련 주제명은 <표 2>에서와 같이 93개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민족 관련 주제명이 제1판에서 'Japanese in the U.S.'를 포함하여 8개의 주제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제31판에서는 47개로 늘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일본계 미국인에 관한 주제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6) 철학·종교

일본철학 및 종교 관련 주제명으로 제9판에 'Japan-Church history'와 'Japan- Religion', 제11판에 'Philosophy, Japanese'가 수록된 후, 제31판에는 모두 22개로 늘어 1.2%를 차지하고 있다.

(7) 정치·행정·외교·국방

일본정치 관련 주제명으로 제5판에 'Japan-Foreign relations-U.S.', 제9판에 'Japan-Politics and government', 'Japan-History, Military', 'Japan-History, Naval'이 수록된 이후 제31판에는 모두 45개로 늘어 2.5%를 차지하고 있다.

(8) 경제

일본경제 관련 주제명으로 제9판에 'Japan-Economic policy'와 'Japan-Economic conditions'가 수록된 이후, 제31판에는 모두 15개로 늘어 0.85%를 차지하고 있다.

(9) 과학기술

'Japan'나 'Japanese'로 시작되는 일본의 과학기술 관련 주제명은 의학 2개, 식물 14개, 동물 11개 등 모두 27개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 의학 관련 주제명이 한 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일본의 경우 일본뇌염 관련 주제명 2개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동물이나 식물 관련 주제명도 상대적으로 일본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 LCSH 초판부터 제31판까지 한·중·일 관련 주제명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LCSH 초판에서는 한·중·일 관련 주제명이 각각 4개, 49개, 24개로 시작하였지만 제31판에서는 각각 713개, 1,742개, 2,647개로 늘어났다.

둘째, LCSH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이 많이 있지만 한국의 '6.25 전쟁'과 '3개의 국가명'(1948년 이전, 남한, 북한), 일본의 '사적'과 '다도', 중국의 '소수민족 관련 언어 및 문학'과 '무역' 등이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중·일 국경 및 영토와 관련된 대표적인 주제명으로 ‘독도’, ‘대한해협’, ‘백두산’ 등은 한국의 입장에서 표목이 기재되어 있지만, ‘압록강’, ‘두만강’, ‘동해’ 등은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기재되어 있다.

넷째, 한·중·일 모두 사회 및 민족 관련 주제명 가운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중·일계 미국인에 관한 주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LCSH가 미국 중심의 산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명이 LCSH에 누락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세분된 주제명도 많이 있다. 즉, 이는 LC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헌적 근거의 원칙에 따라 LCSH에 주제명표목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 해당 문헌을 소장하고 있으며, 주제명표목이 다양하고 상세하게 세분될수록 해당 주제의 다양한 장서가 LC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 관련 주제명이 누락되었거나 세목이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LC의 장서수집 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필요한 한국 관련 문헌이 LC에 골고루 많이 수집될 수 있도록 기증을 하는 등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